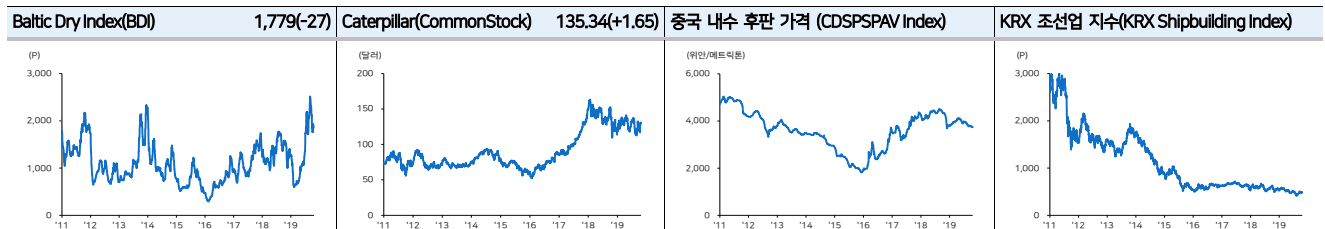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	19E	18	19E	18	19E
한국조선해양	8,811.3	16.8	124,500	-1.2	-1.6	14.7	-3.1	86.8	41.6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732.9	20.0	352,000	-0.8	-0.8	4.5	1.7	4.7	4.0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207.6	5.7	10,200	-1.9	-13.6	-36.1	-54.1	1.0	0.8	0.1	0.1	9.3	9.7
현대건설기계	608.8	11.5	30,900	-0.2	-5.4	-13.2	-27.6	2.0	1.5	0.2	0.2	11.7	13.9
삼성중공업	4,939.2	19.9	7,840	-1.5	-3.2	3.0	5.8	49.4	24.5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135.8	12.8	29,250	-2.0	-6.3	-4.4	-14.3	10.2	7.0	0.9	0.8	9.0	10.9
현대미포조선	1,759.5	14.5	44,050	-0.7	-4.9	-5.1	-26.6	9.5	6.9	0.3	0.3	3.6	4.8
한진중공업	371.4	20.7	4,460	-2.7	-5.1	-18.9	-46.1	89.7	22.4	0.6	0.6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023.6	21.5	74,400	-7.5	-20.0	-11.4	-30.5	13.1	12.8	1.8	1.6	14.6	13.3
두산밥캣	3,243.1	26.5	32,350	-2.4	-8.5	-11.6	4.4	11.8	11.2	0.9	0.9	7.4	7.6
현대로템	1,466.3	4.7	17,250	-4.7	-16.5	-6.0	-38.1	22.2	15.2	1.0	0.9	4.5	6.3
하이룩코리아	236.9	46.8	17,400	0.0	-7.0	-4.9	5.8	7.9	7.2	0.7	0.6	8.8	9.0
성광벤드	284.3	20.2	9,940	-2.5	-7.5	-0.5	-12.8	878.7	35.6	0.6	0.6	0.1	1.8
태광	266.3	12.8	10,050	-1.0	-6.9	1.5	-14.1	60.0	29.3	0.6	0.6	1.0	2.1
두산중공업	1,283.6	11.3	6,350	-2.5	-10.2	0.0	-24.4	-19.1	29.1	0.3	0.4	-0.1	1.4
두산인프라코어	1,263.5	16.8	6,070	-1.6	-5.3	-1.8	-20.0	4.2	4.3	0.7	0.6	17.7	14.3
HSD엔진	117.5	3.4	3,565	-0.7	4.1	4.9	-32.5	-9.4	-4.9	0.5	0.6	-4.7	-8.1
한국항공우주산업	3,630.9	21.6	37,250	-2.9	-4.5	3.0	16.8	54.3	17.2	3.3	3.0	6.1	18.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54.7	22.8	39,850	-1.6	-6.9	19.3	22.6	165.1	21.4	0.9	0.8	0.6	4.1
LG넥스원	781.0	5.6	35,500	0.1	1.4	19.3	-3.9	81.7	N/A	1.6	N/A	2.4	2.4
태웅	212.1	4.6	10,600	3.9	2.9	8.2	1.0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76.6	7.9	10,250	-1.0	-3.8	18.9	32.8	-21.6	13.5	3.8	2.9	-16.2	24.4
한국가본	368.8	13.2	8,390	-1.9	-2.7	9.2	19.2	130.7	27.5	1.2	1.2	0.9	4.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hell reserves berths for raft of LNG carriers at Hyundai Heavy

현대중공업이 수퍼 메이저인 Shell과 최대 8척의 LNG 운반선 건조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일각에선 8척을 초과하는 발주 규모를 예상하기도 함. 수퍼 메이저인 Shell사는 이미 선주들과 신규 발주에 대한 논의 중으로 알려짐. 현대중공업과 Shell사 모두 해당 LOI 체결 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음. (TradeWinds)

Brazil unveils blocks for fresh offer next year

브라질 정부가 내년에도 열릴 17번째 라이선싱 라운드(Licensing round)의 입찰 대상이 될 시추 블록 128 곳을 공개했다고 보도됨. 공개된 블록들의 면적의 총합은 64,100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Campos, Santos, Potiguar, Pelotas, Para-Maranhao 지역에 위치했다고 알려짐. (Upstream)

Global Energy Ventures homes in on first CNG shipping project

스타트업인 Global Energy Ventures (GEV)가 올해 안으로 CNG(Compressed Natural Gas) 해운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투자결정(FID)을 내리지는 못하여도 구체적인 진척을 이룰 것으로 보도됨. 향후 18개월 내 8척의 CNG선이 발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GEV는 올해 초 중국의 CIMC와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음. (TradeWinds)

삼성중공업 "오션리그 드릴십 계약해지 수용시 보상범위 협의"

삼성중공업은 23일 오션리그 드릴십 2척 취소 추진 보도에 대한 조화공시 답변을 통해 "선주사의 선박건조계약 해지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선주사의 보상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차후 상호간 조건 협의가 완료돼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등록 하겠다"고 공시함. (이데일리)

현대로템, 폴란드 전자 현대화사업 출사표

현대로템은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주력자상전투시스템(MGCS) 교체 사업 수주전에 도전장을 냈다고 보도됨. 현재 폴란드는 병력 강화 의미로 전자 교체 등 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로템은 폴란드 전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손을 잡고 수주전에 참여, 유리한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를 밝힘. (매일뉴스)

군산시의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안하려면 매각하라"

군산시의회가 분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내놓으라는 건의안을 채택함. 군산시의회는 "현대중공업은 올해 들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군산조선소의 즉시 가동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거나, 그럴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매각 또는 업종 전환을 하라"고 촉구함. (연합뉴스)